

협회소식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 계획 수립 T/F팀 구성

- 본회, 7월 15일 제1차 T/F팀 회의 개최

본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 C홀에서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 1차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본회 최영열 회장과 건국대 정찬길 교수를 공동 T/F 팀장으로 선임하고 전문가 22명을 질병위생, 분노환경, 사양경영, 유통수급, 번식개량 등 5개 위원회로 배치하는 등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각 세부 위원회별로 정부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양돈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 등에 대한 과제를 부여했다. 이어 7월 23~24일, 1박 2일간 경기도 오산시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세부계획의 심화검토 작업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별 기본대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 후 정리하고, 권역별로 현장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8월 12일 경기·강원을 시작으로 충청(13일), 전라·제주권(17일), 경상권(18일)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T/F팀은 8월 20일경 3차 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별 종합의견을 정리하고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8월 25일경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87페이지 참조)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신·증축 자유 롭게”

- 본회, 농림부에 농지법 완화 개정 건의

본회는 지난 7월 16일 농지법에 의해 축산농가가 축사 신축 및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농림부에 호소하고, 앞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가 전업규모 이상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거나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쌀 증산 정책과 같은 농지법 제정의 주요한 목적들이 식생활의 변화와 개방화 속에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친환경 위주의 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현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고정식 온실, 식물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설치 등의 토지 이용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쌀 소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등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종농업의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나 축산농업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 같은 농업인인 축산인의 축사용 건축

물이 신축 또는 증축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농지법은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농업진흥·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등으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회, 돼지 두당 분뇨 배출원 단위 하향 조정 요청

- 농림부에 현장 실태조사, 관련 법 개정 등 제반 조치 요구

본회는 최근 정부에 현재 환경부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돼지의 두당 분뇨 배출원 단위가 8.6ℓ/두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 현행 돼지 두당 배출원 단위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양돈농가의 돼지사육시 세정수 사용량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돈농가의 경우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등록제 참여시 돼지사육두수가 외부에 공시되어 자칫 등록제가 사육두수를 규제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농가의 등록제 참여를 낮추는 용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육두수 외부 공시시 두수에 맞는 분뇨처리 시설의 확충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고, 시설 확충에 따른 농가의 시설 설치비용 등 부담도 많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과거 40%에서 20%로 조정되어 시설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림부에서 이러한

돼지 두당 배출원 단위의 하향조정 필요성과 양돈농가의 등록제 참여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돼지 두당 배출원 단위의 하향 조정 현실화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관련 법 개정 등 제반 조치를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본회, 농협과 양돈자조금 공동운영 기본지침 체결

본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난 6월 21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법” 법률 제3조(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자조금 활동자금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항에 근거해 양돈자조금 사업과 관련한 「양돈자조금 공동운영 기본지침」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90페이지 참조)

본회, 사료 판매가격 원가 공개 요구

- 성명서 발표, 축산농가와 고통분담 촉구

본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6월 22일 최근의 사료 판매가격 급등과 관련해 사료의 판매가격 원가를 공개하고, 6월 중순에 인상한 사료값을 즉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1년간 37%까지 급등한 사료가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함을 알렸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향후 양돈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양돈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앞으로 양돈업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료업계는 사료값 인상과 관련, 국제

곡물가 인상과 해상운임 등의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사료값 인상요인을 경영 합리화 등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반문하고 있다.

본회는 정부에 사료원료 무관세, 부가세 의 제매입세를 상향조정 등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9월 이후의 돼지 값 하락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구조 조정과 물류비 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사료업체가 축산농가와 서로 상생의 관계임을 직시해, 축산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즉시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2004년 본회 회장단 · 도협의회 개최

- 교체모돈 수출 위해 다각적 노력키로

지난 6월 29일 오후 1시 대전 유성 소재 "만나" 식당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 및 김동환 부회장 등 회장단과 도협의회 회장단 9명이 모인 가운데 2004년 정기 도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가격 폭등 문제과 관련, 사료회사의 일방적인 사료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본회와 사료회사가 기술을 제휴하고, 협회에서 OEM 사료 주문 계획을 검토하며, 중앙회가 사료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본회는 축산물가공처리업무의 농립부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최근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교체모돈 수출은 향후 추세에 따라 교체모돈 1만두 수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협의회별로 필리핀 양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키로 하고, 경남·전남·전북·경북 지역이 참여한 후 그 외 지역도 이후에 참여키로 했다.

본회, 제3차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15일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 윤주성 부회장, 이병모 부회장과 김동성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양돈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장단은 양돈분야 농업농촌 세부계획 추진에 따른 T/F팀 구성, 의무 양돈자조금 추진 관련사항, 축산업등록제 시행, 축산물 가공처리업무 일원화, 식당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 추진, 구제역 피해 농가 긴급경영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정책 및 제도 관련사항,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처, 필리핀 교체모돈 수출 추진 등 양돈 현안문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사료가격 폭등과 관련 전국의 농가들중 표본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이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양돈분야 농업농촌대책 세부추진 계획이 전국의 양

돈농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회, 생산자 단체 운영 축산물직판장 융자금 금리인하 요청

본회는 지난 6월 15일 농림부 장관 앞으로 생산자 단체 운영 축산물직판장 융자금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직판점 개설시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정책자금(축산발전자금)의 금리가 5~5.5%로 시중 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금을 지원 받은 지부(회)는 정책자금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회가 요청한 주요 내용에서 자금의 종류는 축산발전자금 중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 자금이 해당되며, 지원 조건은 연리 5~5.5%,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지원대상에는 생산자단체, 계열화업체, 브랜드업체 및 식육업자가 해당된다.

본회는 생산자단체에서 동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상환기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를 4%에서 1.5%로 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한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회 이천지부는 연 5%의 금리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자금을 대출 받았으나, 2004년도 농어가부채경감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한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또한 이천지부는 대출 받은 자금이 시중 예탁금리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 대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금리인하를 정당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본회, 돼지전문 수송차량 지원 방안 농림부 건의

본회는 지난 7월 6일 돼지 출하시 수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농림부에 돼지를 전문으로 수송할 수 있는 돼지 전문 수송차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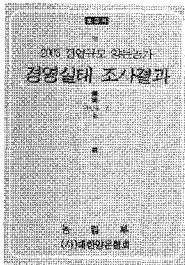
현재 농장에서 출하하는 돼지의 수송은 대부분의 경우 트럭에 밀집된 형태로 온도 조절 없이 운반되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반과정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돼지 전문 수송차량을 지원함으로써 PSE육 발생을 방지하고, 먹거리에 대한 고급품 이미지 개선 및 전염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전문 수송차량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문 수송차량을 도입하면 육질이 저하되는 것을 감소하고, 체중 감소도 예방하며, 폐사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회는 돼지 전문 수송 차량 지원과 관련 전국 생산자 단체 산하지부, 즉 본회에 수송차량을 지원해 줘, 본회 지부가 중심이 되어 양돈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해당법인에 전액을 국고보조로 하는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수송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2004년도에는 예산 반영

본회, 「2003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배포

- 전국 시도, 시군, 농림부 산하기관, 전국 지부, 양돈조합, 언론사 등



본회는 농림부와 함께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전국의 전업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결과」 책자 600부를 농림부와 공동 제작, 관련기관 등에 배포했다.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 책자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전국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양돈조합, 본회 전국지부, 언론사, 전국 축산관련 대학에 자료로 배부했다.

양돈농가의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양돈수급안정대책 등 양돈정책 수립 및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에는 전국의 전업규모 양돈농가 2,011호가 설문 응답했으며, 조사농가중 1천두 이상 사육농가가 1,260호로 조사농가의 62.6%를 차지해 전체 양돈전업농가의 충분한 조사 샘플 조건

을 갖추었으며, 조사농가의 사육두수는 334만두로 2003년 9월 기준 전체 사육두수 923만두의 36.2%를 점유하고 있어 전업양돈농가에 대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에는 총 44문항의 설문조사 결과와 결과 분석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성별·연령·학력 등 일반현황, 돈사면적·사육두수·이유두수 등 생산현황, 산자두수·이유두수·모돈회전율 등 생산성적, 수입·지출·손익·부채 등 양돈경영 및 수익성 현황, 질병과 사고율 현황, 신기술 습득현황, 위험관리 경영현황, 정책참여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는 이번 조사결과가 각 지부에 배부되는 만큼 양돈농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생산성적을 조사 자료와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더욱 노력하고 보완해 농장 경영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까지 110개소 지부에 89억1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농협 서울공판장에 주6일 운영 요청

- 농협 나주공판장 토요일 정상 운영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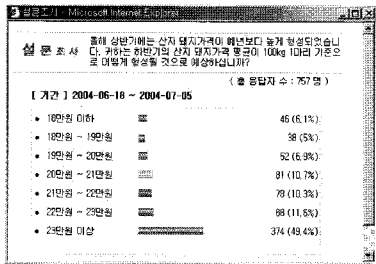
본회는 7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들이 주5일 격주 근무 실시하고, 2005년 7월부터 매주 토

요일 휴무로 전면 확대 실시되는 것과 관련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축장 검사원들의 휴무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및 도축검사원 교대 근무 등 실시로 현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주6일 도축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나주축산물공판장은 지난 7일 축산물도매시장 유통활성화 및 양돈농가 등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해 토요일 도축작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 왔다.

양돈농, 하반기 산지 돼지가격 23만 원 이상 예상

- 본회 설문조사에서 양돈농가 50.1%가 23만 원 이상에 응답



본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산지 돼지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귀하는 하반기의 산지 돼지가격 평균이 100kg 1마리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87명의 농가들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산지 돼지가격이 ‘23만 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이 444명으로 전체의 50.1%로 반 이상을 차지해, 양돈농가 두명 중 하나는 하반기 산지 돼지가격도 전반기와 같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2~23만원 11.3% △20~21만원 10.8% △21만원~22만원 10.1% △19~20만원 7.4% △18만원 이하 5.5% △18~19만원 4.7% 순으로 나타났다.

본회, 돼지사진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본회 임원실에서 ‘월간양돈’ 창간 25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돼지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은 대상 이선주씨, 은상 권정숙씨, 동상 김주리씨, 여



▲ 우측부터 이선주씨(대상), 권정숙씨(은상), 최영열 회장, 정명숙씨(입선), 김주리씨, 여성복씨(각 동상)가 수상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복씨와 입선에 정명숙씨 총 5명에게 대한양돈협회 회장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으며, 더불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콘테스트에 선정된 작품들은 앞으로 각종 홍보물을 통해 양돈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1만 3천 원

지난 6월 21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8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1만2천99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3두를 비롯, 최우수돈 9두 포함 총 137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37두 모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만7천609원(92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71만9천556원(45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4점) 수퍼돈이 충남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14번지 배상종(충남AI센타)씨에게 최고가인 4백10만원에 낙찰됐으며, 경기양돈 듀록(선발지수 266점) 최우수돈이 2백60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금액은 총 1억2천5백여만원을 나타냈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3만 4천원

지난 7월 12일(월) 양돈협회 공인종돈능력 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7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3만4천32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3두를 비롯, 최우수돈 8두 포함 총 143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41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90만4천646원(99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6만8천571원(42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3점) 수퍼돈이 경남 사천시 용현면 금분리 162번지 조용운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백만원에 낙찰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1억1천7백64만원을 나타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남도협의회, 교체모돈 배정두수 무상기증 결정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도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체모돈 배정두수를 무상 기증기로 하는 등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협의회는 교체모돈 수출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교체모돈 수출시 전 지부가 배정된 두수를 무상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4박 5일간 필리핀 교체모돈 수출을 위한 현지시찰을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부 또한 자율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돈육 수출부위 전문판매점 '돈도투' 개장

본회 경북도협의회(협의회장 김성곤)는 지난 7월 7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경상북도 및 영천시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생산자단체 운영 돼지고기 수출부위 전문판매점 '돈도투'를 개장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98페이지 참조)

전북도협의회, 교체모돈 수출 사업 적극 참여 결의

전북도협의회(회장 송정기)는 지난 7월 9일 교체모돈 수출 사업과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내 지부장과 총무들이 참여했고, 참석자들은 오는 8월 11일 필리핀 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교체 모돈 수출 관련 현지 조사 및 시장 상황을 파악할 것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협의회는 본회가 9월부터 진행하고 자 하는 교체모돈 수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곡성지회장에 양중철씨 선출



양중철 곡성지회장

전남 곡성지회는 지난 5월 7일 곡성축협 3층 회의실에서 회원 12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중철(50)씨를

신임 곡성지회장으로 선출했다. 곡성지회장으로 선출된 양중철씨는 전남 곡성군에서 양돈업을 해오고 있다. 한편 총무에는 김은식씨가, 감사에는 손한수씨가 선출되었다.

보성지부장에 선희기씨 선출



전남 보성지부는 지난 4월 21일 지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희기(37)씨를 신입 보성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보성지부장으로 선출된 선희기씨는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에서 2,500두 규모의 회원농원을 경영해오고 있다.

울산지부, PMWS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기회 가져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6월 15일 11시 지부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국 지부장 외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폐수 처리와 운송비 인상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7월 도축장 휴무에 대한 안내와 축산업등록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 있었다.

이어 장백 베타켄 전형배 수의사가 참석해 PMWS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고, 회원들은 PMW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안성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열어

안성지부(지부장 김상수)는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농협안성교육원 운동장에서 '2004 안성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양돈뿐만 아니라 한우, 낙농, 육우, 양계, 양봉인 등 축산 관련인

들이 모여 축구, 배구, 홀라후프, 릴레이, 노래자랑 등의 대결을 펼쳤다.

안성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많은 축산인들이 모인 가운데 양돈인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해지부, 양돈업 발전 방향 모색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발전 가능한 양돈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전개했고, 이어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방역담당자가 강사로 참석해 돼지오제스키병의 증상 및 예방대책에 대해 강의했다.

제주 서남지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양돈전략 모색

제주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지난 7월 7일 11시 남제주축협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용조 지부장 외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충남 양돈조합의 양돈기술연구소 정준호 소장이 참석해 '고사료가 시대에 따른 양돈전략'에 대한 강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주지부, 양돈자조금 조기 정착에 노력키로

경주지부(지부장 배만용)는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과 배만용 지부장 및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교육과 협회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또한 최영열 회장은 양돈자조금의 조기 정착과 더불어 최근 모든 교체사업 추진 등 현재 양돈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지부, 양돈분뇨 처리 관련 세미나 개최

진주지부(지부장 오관용)는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7월 월례회의와 양돈분뇨 처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분뇨의 악취제거와 급속 액비생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황

정환경의 조효석 사장이 참석해 강의를 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존에 대한 이론, 분뇨의 악취원리와 급속액비생산 원리 및 오존 양돈분뇨 처리 경우 경제성에 대한 검토와 시설 사례 등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양주지부, 단합대회로 화합의 장 마련

양주지부(지부장 조운상)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광적면 비암리에 위치한 아카시아농원에서 지부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양주지부는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양돈인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또한 양돈농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앞으로 단합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조운상 지부장 및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운상 지부장은 여름이 되면서 다가오는 첫 더위에 따른 양돈농가의 질병 예방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다.

양평지부, 각종 질병 예방 방안 논의

양평지부(지부장 조원묵)는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 양동면 고송리 소재 고송공원에서 조원묵 지부장 외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농가들에 지속적인 문제인 PMWS에 관한 증상을 알고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돈열 예방을 확실히 하기 위한 예방법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돈**